

## 방글라데시 교육개발 협력 방안과 선교적 시사점

김정효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김혜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초등교육학과)

### I. 서론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우리가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 공여국으로 가입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ODA란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의미하는데, 2011년 한국 ODA 규모는 US\$13.2억으로 전년대비 약 12.5% 증가하였으며, ODA/GNI 비율은 ODA/GNI 비율은 2011년기준으로 0.12% 수준을 기록하였고, 2002년 0.05%에 비해서는 4배정도가 증대로 빠른 속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를 주관부서로 하는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개발을 비롯한 국가 수준의 다양한 ODA방향 설정에 대한 실질적이거나 반성적 탐색(김은미 외, 2012)들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ODA에 관한 연구들은 한국 ODA의 규모확대와 질을 개선에 주목하고 있는데, 신흥공여국으로서 한국이 단기간에 ODA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어려운데 비해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는 차별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이계우, 박지훈, 2007). 특히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및 교육 분야의 개발경험과 IT관련교육은 비교적 높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서 개발도상국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박태준,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주요한 지원국의 하나인 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대방글라데시 개발지원의 중점분야의 하나인 교육분야의 개발협력방안을 탐색하고 이에 근거하여 선교적인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한재광(2013)은 한국 시민사회는 1990년대 이후 국제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 '개신교 신앙에 기반한 단체(PFBO: Protestant Faith-Based Organization)'가 그 규모, 리더십, 역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PFBO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는 개발의 '외국민간원조단체'의 영향으로, 1980년대 이후에는 급성장한 한국개신교회의 해외선교의 영향으로, 1995년부터는 한국정부의 NGO지원제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한국사회의 개발지원의 활성화로 발전하여왔다고 보았다. 즉 PFBO는 한국사회의 개발지원과 교회의 선교와 밀접하게 연관 관계를 맺고 성장해 온 것을 보게 된다.

한편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2012년 현재 해외선교사를 169개국 2만4천7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한국선교연구원도 2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면서 '세계선교의 주역'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의 개발ODA의 참여는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개발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개발의 규범들 (예를들어 2011년 채택된 부

산선언(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의 4대 공동원칙인 ① 개발우선과제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주인의식, ②결과중심, ③ 포용적 개발 파트너십, ④투명성 및 상호책임성과 같은 것들)에 근거하여 종교적 배경을 가진 기독교NGO 단체들이 종교적 의도성을 포기해야한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종교적 의도성의 은폐에 대한 비윤리성을 비판하기도 한다.

한편 선교전문가들은 선교가 개발의 규범에 묶일 때, 가질 수 있는 오류에 대해 경고한다. 즉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해함에 있어서 수단과 목표를 혼동하여 사실상 복음전파를 위해 시작한 사회봉사와 선한 사업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 그리스도의 제자삼는 일에 소홀이 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참여는 해야 되며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영혼 구원, 교회개혁에 대한 열정은 식을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신서균, 1993).

이러한 점에서 ODA를 기독교적 시각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의 문제는 많은 연구와 논의를 필요로 한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ODA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이유를 들고 있다. 김희연·김태환의 연구(2012)는 성경에 나타난 이웃에 대한 구제의 의미가 국가 간 ODA 또는 지원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복음을 기독교 세계관에 의한 총체적 삶의 회복이라고 이해할 때만이 구제와 선교도 영적, 정신적, 물질적(일상적) 건강을 총체적으로 지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원곤(2011)은 기독교 NGO가 ODA와 협력관계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현지 사회의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사역을 추진할 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는 기독교 NGO는 투철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멤버들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운영에는 전문성과 규범성이 있어야 하며, 그들의 전략과 방법은 원조를 받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인권중심의 윤리적 경영을 통해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기독교 복음의 우월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본 연구는 방글라데시를 대상으로 교육개발 협력을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 이를 근거로 선교적 시사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방글라데시는 2008년 총선을 계기로 신정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출범하였고 한국의 ODA 중점협력 국가 중 주요한 개발협력 대상국이며, 전세계적으로 NGO 활동이 가장 활성화 되어있는 국가중의 하나이다. 또한 직접적인 교회사역이 어려운 이슬람권국가로 이미 상당 숫자의 PFBDO가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방글라데시의 일반적인 교육 현황과 교육 ODA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향후 한국의 대(對) 방글라데시 교육개발협력 방안은 어떠한가?

셋째, 대(對) 방글라데시 교육개발협력에서 보여지는 선교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 II. 방글라데시 교육 현황

방글라데시 인구는 1억 6700만 명(2011년)으로 세계 1위의 인구밀도를 기록하고 있으며(1.09명/km<sup>2</sup>) 종교는 국교인 이슬람교가 89%, 힌두교 10% 등이다. GDP는 1,038억 달러이고 1인당 GDP는 623달러(2011년)이다. 매년 홍수 피해와 식량위기가 반복되면서 빈곤 타파, 식량 자급, 인구증가율 축소 등을 국가의 최대목표로 잡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빈곤개선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는 있으나,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빈곤인구가 전체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며 방글라데시의 MDGs 목표 달성은 많은 부분에서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10년 기준으로 방글라데시의 국가부패순위는 전체 178개 국 중 134위를 차지하며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정부패의 만연이 지목되고 있다. 또한 급격한 인구의 도시지역 집중으로 인한 거주와 위생 등 기초 서비스 부족으로 도시 빈민들의 생활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 1. 방글라데시 학제

방글라데시의 현 학제는 다음의 <표-1>과 같으며, 1972년에 제정된 방글라데시 헌법 17조에서는 통일된 보편적 교육의 체계 설립과 함께 무상의무교육 확대, 사회의 필요에 맞춘 교육 및 문맹률 감소를 위해 방글라데시 국가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강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 국가개발전략인 VISION 2021에도 근대적, 진보적, 기술 선도적 국가의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보장을 목표로 두고 있다.

<표-1> 방글라데시의 학제

연령	학년	학교분류				교육단계	
25	20					고등교육	
24	19	박사과정					
23	18	(Doctorate)	공학 석사 과정				
22	17	석사과정					
21	16	(Master's)	공학 학사 과정				
20	15	학사과정					
19	14	(Bachelor's)					
18	13		공학 diploma 과정				
17	12	후기고등학교 (Higher Secondary)		교원, 농업 자격증 과정		중등교육	
16	11						
15	10	전기고등학교 (Secondary)	무역 자격증 과정	직공과정			
14	9						
13	8	중학교 (Junior Secondary)					
12	7						
11	6						
10	5					무상의무 기초교육	초등교육
9	4					(Free, Compulsory	
8	3	초등학교 (Primary)				Basic Education)	
7	2						
6	1						
5	3	취학전 (유치원, Kindergarten)					유아교육
4	2						
3	1						

\* 출처: UNESCO(2011), Bangladesh World Data on Education 7th ed, 2010/11을 토대로 재구성함.

방글라데시 교육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1974년 초등학교법을 통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모든 초등학교를 국유화하고 교사들을 공무원화 하였고 1992년과 2010년의 사립대학 법을 통해 방글라데시 내에 사립대학 설립을 국가가 규제하며 국가승인위원회를 통해 설립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1990년 초등의무교육법에 의해 6세-10세까지의 아동들에게 초등교육을 의무교육화 하여 1992년에 제한된 범위에서 시행하였으며 1993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취학전 교육은 주로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초기 아동발달과 유아교육의 인식 수준이 낮은 상태이며 공교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2005년 기준 아동여성부, 종교부, 다양한 NGO 등이 운영하는 유아교육시설에서 2만5천여 학급의 수업이 진행되어 총 1백1십만 명의 아동이 교육을 받았고, 사립유치원에서도 약 2만여 학급에서 유아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초등교육은 <표-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비공립 초등학교, 비정규 초등학교 및 종교학교 등의 학교의 수가 많은 것에 비해 공립학교의 수는 그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비해 등록률은 공립학교가 56.9%로 가장 높다. 따라서 공립학교는 2부제 수업으로 진행되는 데 학급당 70명 이상의 과밀학급의 형태로 운영된다. 초등교육은 5학년제로 입학연령은 6세이고 1992년 이후 무상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학비는 무료이며 5학년 말에 졸업시험을 치른다. 초등학교는 정부초등학교, 등록된 비정부초등학교, 지역학교, 마드라사 그리스 기타 학교로 분류되며 소외지역에는 1-2학년 아동들을 위한 위성학교가 있다. 초등학교 취학률(95%)은 높으나 중도 이탈률(25%)이 문제로 남아 있으며 낮은 문해율(77%)과 2부제 수업 실시로 인한 수업시간 감소로 학생들의 수업시수는 법적인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시간이 지역간 격차가 심할 뿐 아니라 교사의 학습지도 능력에도 편차가 크다. 중등교육에 있어서는 진학률이 대상인구의 65%에 머물고 있으며 중도탈락이 중학교의 경우 40%정도이고 고등학교는 75%에 달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표-2> 학교 유형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 분포 비율

기관 유형	등록률	기관 수
공립 초등학교	56.9	37,700
등록된 비공립 초등학교	18.7	20,100
비정규 초등 교육	9.6	>30,000
Madrassa	7.0	16,000
유치원	4.7	2,700
고등학교 산하 초등교육 기관	1.3	1,000
기타(전문학교, 비등록, 기타)	1.8	3,900
합계	100.0	81,400+>30,000 NFPE

\* 출처: IED(2010), Educational Access in Bangladesh Country Research Summary, BRAC University, p. 2.

고등교육은 현재 31개의 공립대학과 51개의 사립대학이 있는데 이들은 대학기금위원회(University Grants Commission)의 감독아래에 있다. 최근에는 사립대학이 활발하게 세워지고 있고 일반대학교, 기술교육대학교, 그리고 Madrashes 이슬람계통의 종교대학교가 있

으며 교육부자료에 의하면 공립대학의 재학생수가 2006년 15만을 기록하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직업교육은 기술훈련과정에 노동시장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해 취업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현재 교육부통계에 따르면, 기술직업교육기관은 국립이 180개 그리고 사립이 2548개가 있고 학생 수는 모두 24만 명에 이른다. 초등·중등교육과 달리 직업교육과 기술훈련 과정에서는 성별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2005년 정부의 기술 및 직업학교에 취학 한 여성은 단지 14%에 불과하며, NGO가 운영하는 곳과 고등교육기관까지 포함하면 총 26% 정도이다. BRAC UNIVERSITY 부설 교육연구소의 Manzoor Ahmed(2011)는 그의 저서 "Education in Bangladesh"에서 공립의 직업·기술 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된 자들의 10% 미만이 졸업 직후에 훈련받은 분야에 취직하고 나머지 반은 미고용 상태로 남고, 나머지 반은 다른 교육과정에 등록하고 있어 방글라데시 노동인구의 80%는 비공식 훈련에서 공급되고 있다고 말한다. 방글라데시의 첫 빈곤 감소계획 보고서(PRSP)는 직업교육의 확대와 발전을 빈곤감소 주요 전략으로 평가했지만 현장의 요구에 교육시스템이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빈곤층의 고용 및 수입증가에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NGO와 민간 교육자들이 청년과 소외계층과 지방의 시민들에게 기초적인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이 국가의 표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관리하에 들어 오게 된다면 정부의 정책과 목표가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평생교육은 Khan(2005)에 따르면 11-45세 남녀에 집중되어 있고 문해교육과 수익창출교육을 목적으로 하지만 전체 교육예산의 1%도 안되는 교육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평생교육역시 대부분 비정부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교원교육은 유네스코 조사에 의하면 현재 교사 중 약 71%정도가 자격이 있는 교사이며 남녀교사 비율의 불균형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된다.

방글라데시 교육행정부처는 교육부(MOE; the Ministry of Education)와 등록률과 기초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초등 및 대중교육부(MoPME; the Ministry of Primary and Mass Education)를 따로 두고 있다. 일반 교육부에서는 약 8백만명의 중등, 고등 그리고 직업교육과 종교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초등대중교육부는 약 17백만 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다.

## 2. MDGs 및 EFA 현황

유엔이 설정한 MDGs와 유네스코에서 설정한 EFA를 통해서 방글라데시 교육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글라데시는 2012년 중소득국가 진입 및 디지털 방글라데시 실현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VISION 2021과 제6차 5개년개발계획에서 교육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MDGs 이행상황을 보고한 'Bangladesh MDGs Progress Report 2011'에서는 MDGs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MDGs 중 초등교육의 보편화와 교육성평등에 교육관련 목표의 현황을 보면 <표-3>과 같다. 방글라데시는 다른 저개발 국가나 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초등교육에서는 등록률이 높은 편이나 이수율이나 문해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성비균형의 면에서는 고등교육에서 불균형이 심각하게 보이는데, 중등교육에 가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중등학교 여성 수당지급 프로그램(FSP: Female Stipend Programme) 운영 때문이다. 1982년 방글라데시 6개 지역에서 여성 중등교육의 등록 및 유

지를 촉진하기위해 운용되었다가 1994년 프로그램이 확장됨에 따라 중학교에서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따라서 높은 중도 포기율, 낮은 문해율, 소외지역 아동 교육기회 제공, 교육의 질 향상, 고등 교육에서의 남녀격차의 감소 등이 방글라데시가 해결해 가야할 주요한 과제로 보인다.

〈표-3〉 방글라데시의 교육 현황

관련지표 국가 명	목표 2: 초등교육 보편화			목표 3: 교육성평등		
	초등교육 등록률	초등교육 이수율	문해율 (15-24세)	초등교육 성비	중등교육 성비	고등교육 성비
방글라데시	91	65	77%	-	1.13	0.61(2009)
Developing regions*	89.9	89.1	88.1	0.97	0.96	0.98
Southern Asia excluding India*	80.2	67.9	79.1	0.92	0.89	0.87

\* 출처 : MDGs Report 2012.

〈표-4〉의 방글라데시의 EFA 현황을 보면 유아교육 등록률은 매우 낮는데, 2009년의 통계를 보면 1999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청년 문해율은 1999년 당시 45%에서 2009년 75%로 10년간 무려 30%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초등교육에서는 성비의 경우 0.84로 다소 불균형적인 것으로 보인다. 중등교육의 총 등록률은 42%이며, 중등교육 성비의 경우 1.12로 여성 비율이 FSP로 인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까지의 진급률은 67%이며 초등수준의 여성 교사 비율은 43%로 매우 낮은 편이다.

〈표-4〉 방글라데시의 EFA 현황

EFA 목표		관련지표		1999*	2009
목표1	유아교육	유아교육 총 등록률	Total (%)	18	10
목표2	초등교육의 보편화	초등교육 순 등록률	Total (%)	-	86
			GPI(F/M)	-	1.08
목표3	청년과 성인의 학습기회 증진	청년 문해율 (15-24세)	Total (%)	45	75*
			GPI(F/M)	0.73	1.04
목표4	성인 문해 수준 증진	성인 문해율 (15세 이상)	Total (%)	35	56*
			GPI(F/M)	0.58	0.84
목표5	초등교육의 성비	총 등록률	Total (%)	-	95*
			GPI(F/M)	-	0.84
	중등교육의 성비	총 등록률	Total (%)	42	42
			GPI(F/M)	0.98	1.12
목표6	교육의 질	초등학교 5학년까지의 진급률	%	-	67
		초등학교의 여성교사 비율	%	-	43

\* 출처 :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11.

참고 : (z) Data are for the school year ending in 2006, (y) Data are for the school year ending in 2005, (x) Data are for the school year ending in 2004, (\*) national estimate.

방글라데시 정부는 MDGs달성을 목표로 제6차 5개년 개발계획(SFYP 2011-2015)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한 교육부의 주안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도덕적, 인도주의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세우는 사고와 행동과 일상적인 삶에 대한 학습자들의 열정을 일으키고 고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농업분야에서 비농업분야로 노동인력 60만 명 이동
- 제조 건설 및 서비스 분야에 1,040개의 일자리 창출,
- 연 40~50만 명의 해외근로자 송출 등의 고용창출
  - 의무교육 8학년까지 확대,
- 과학지식과 정보통신기술을 겸비한 세대 양성,
  - 문맹퇴치 및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 교사 증원 및 역량 강화,
- 빈곤아동 및 여아 교육 보조금 지원
  - 교육 분야 민관협력 확대

또한 교육부의 정책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 가치관 교육을 제공
- 직업 기술교육 활성화
- 교과과정의 현대화
- 효율적인 경영을 확보
- 정보와 소통 기술 강화
- 교사의 효율성을 보장
- 남녀평등보장

### 3. 방글라데시 교육의 현안

이상과 같은 방글라데시 교육현황에서 보여지는 문제점을 각 분야별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육에서 양적인 팽창은 이루어졌지만 높은 중도 포기율과 낮은 문해율 등에 대한 교육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 과밀학교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교사 확보와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제고되어야 한다. 나아가 교원의 남녀 성비 균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공립학교에 비해 기타 비공립학교 및 종교학교 등의 다양한 학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세계최대규모의 자국 교육개발 NGO단체인 BRAC(Bangladesh Rural Advancement Committee)의 역할이 매우 크다. 이 단체는 대학과 몇만개의 학교를 가지고 있으며 은행과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매우 거대한 교육개발네트워크로 교육현안해결에 이와 같은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등교육으로의 진학률이 매우 저조 하여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또한 교육에서의 여성의 성비의 문제가 심각하여 여성교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글라데시의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초·중등교육 및 여성교육이 확대되어져서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높이고 문해률을 높여서 경제성장을 위한 양질의 인적자원개발의 기초적인 교육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

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직업교육은 기존의 기술훈련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여 취업기회가 제한적이므로 직업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직업교육은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교육의 전이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 고등학교의 교육과 연결되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정식 자격을 가진 교사가 부족하며 도시와 지방과의 교사 수준과 지도 능력의 격차가 크므로 교사교육의 기회와 재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남녀교사의 불균형의 문제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여성교원양성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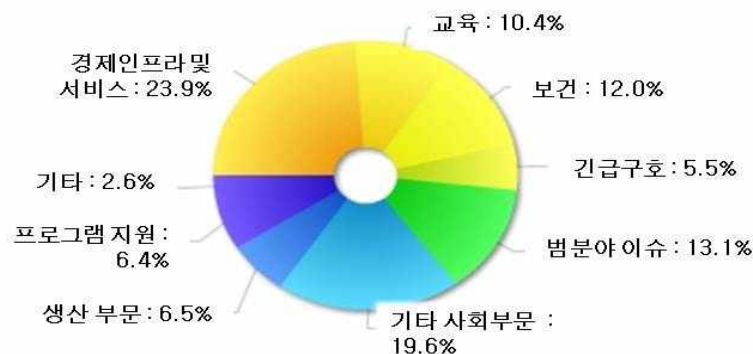
다섯째, 유아교육에서는 유아발달이나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여 도시의 일부지역 외에는 유아교육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유아교육 기관을 보다 아동친화적인 적절한 학습 환경으로 만들고, 유아교육 전문교사양성 기관을 확대하여 유아교육을 총체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교육행정체제에서 보면, MDGs와 EFA의 달성을 위해 초등대중교육부를 따로 둔 것은 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나 공식적인 유네스코위원회는 교육부내에 있어 협력이 효율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문제와 연결되어진 부서들간에 협력이 긴밀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보이기도 한다.

### Ⅲ. 방글라데시 ODA 현황과 SWOT 분석

#### 1. 방글라데시 ODA 현황

방글라데시에 대한 ODA는 '06-'10 평균 세계은행(IDA)과 아시아개발은행(ADB)등 다자기구의 지원 비중이 높고, 양자 ODA 최대 공여국은 영국으로 나타난다. 방글라데시는 개발 및 긴급구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국제사회 ODA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5년 해외원조액 규모는 GNI(Gross National Income)대비 약 5%였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서 '09년 GNI대비 약 1.8%까지 하락하였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입분야별로 보면 경제인프라 확충(23.9%)과 기타 사회 부문(19.6%)에 대한 자원 배분이 가장 크며 교육은 10.4% 정도로 할애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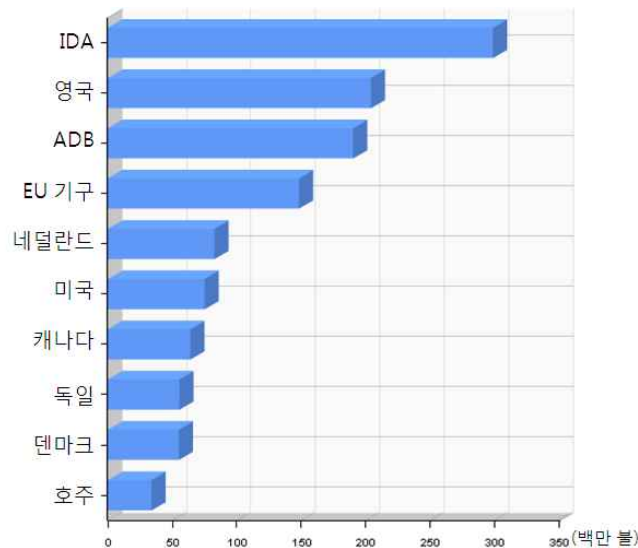
[그림-1] 5년 평균 ODA의 분야별 투입 비율 ('05-'09)

\* 출처: 국제개발협력위(2012), "국가협력전략", p. 27.

\* 원출처: OECD/DAC



아래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공여국으로는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및 미국, 등이 있으며, IDA와 ADB가 최대 공여기관이다. OECD/DAC 회원국 중 최대공여국인 영국은 방글라데시 최대 지원국으로, 최근 5년간('06-'10) 평균 2억 4백만 불을 지원하였고, 한국은 방글라데시의 양자 지원 대상국가 중 원조 규모가 4천 8백만 불이다.



[그림-2] 방글라데시의 주요 공여국(기관) 원조 규모 순위 ('06-'10 평균)

\* 출처: 국제개발협력위(2012), "국가협력전략", p. 26.

원출처: OECD/DAC

방글라데시의 교육ODA 중 초등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다자간 프로젝트는 초등 교육개발프로그램 Ⅲ(PEDPII ; Primary Education Development Program Ⅲ; 2012-2015)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IBRD, ADB,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9개의 원조 단체 (ADB, DFID, World Bank, EU, AusAid, Sida, CIDA, JICA, UNICEF)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양질의 초등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선된 학습 환경제공, 학습성취도제고, 아동의 참여 확대, 교육 불평등의 격차 감소, 그리고 교사훈련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에 종료되는데, 이에 대한 중간평가가 2014년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방글라데시교육개발에 대한 외부 원조의 효율성의 관한 방글라데시 자체 내 연구를 보면, Ahmed(2011)는 외부원조는 자국의 교육예산 지출증가에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했으며 초등학교 충등록률 상승 등의 MDGs을 달성하는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 2. 한국의 대(對) 방글라데시 ODA 현황

한국의 대(對) 방글라데시 ODA 지원은 <표-5>와 같이 지난 5년('07~'11)간 방글라데시 에 대해 17개 정부기관 및 부처에서 총 1억 6천만 불을 지원하였는데 이 중 유상지원이 1억 26백만 불, 무상지원이 약 4천만 불이다. 對 방글라데시 ODA는 2007년 천만 불에서 2011년 8천만불로 약 8배 가량 증가하였는데 이 중 유상지원 금액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평균 약 2천5백만 불, 무상지원은 연평균 약 8백만 불 가량이 지원되었다.

〈표-5〉 한국의 방글라데시 지원추이

(단위: 백만불, 순지출 기준)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유상	(승인)	24.84	30.6	78.91	92.50	74.73	301.61
	집행	1.37	-1.40	9.88	45.44	70.81	126.12
무상		8.62	9.45	3.66	9.23	9.21	40.17
계		10.01	8.05	13.54	54.67	80.02	166.29

\* 출처: 국제개발협력위(2012), "국가협력전략", p. 36.

원 출처: EDCF, KOICA 통계 (\*부상집행액은 KOICA 사업만 포함)

한국의 대 방글라데시 지원 사업 유형별 규모를 보면 〈표-6〉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2007~2011년까지 5년간 수출입은행(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27개 프로젝트형 사업 및 초청연수, 봉사단, 개발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표-6〉 '07~'11년간 對 방글라데시 EDCF와 KOICA의 프로젝트형 사업 유형별 분포

(단위: 백만불/건·명)

구분	프로젝트	초청연수	봉사단	개발조사	NGO	기타
유상(EDCF)	301.61(16건)	-	-	-	-	-
무상(KOICA)	15.8(11건)	3.99(526명)	9.02(483명)	0.91(2건)	1.65	1.32

\*출처: 국제개발협력위(2012), "국가협력전략", p.36.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야별 지원 현황을 보면 2007~2011년 對 방글라데시 ODA 지원은 교통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공공행정(IT포함)(23%)·산업에너지(19%)등이 뒤를 잇고 있으며 교육은 7%이다.

〈표-7〉 '07~'11년도 방글라데시 분야별 지원현황(집행액 기준)

(단위: 백만 불/건·명, 순지출 기준)

구분		교통	교육	식수/위생	보건 의료	환경	공공행정(IT포함)	에너지	농촌 개발	기타	합계
유상	승인	88.16	44.60	45.75	-	-	30.60	92.50	-	-	301.61
	집행	71.55					29.63	24.94			126.12
무상'		0.32	11.28	-	2.84	-	7.03	4.98	4.24	2.0	32.69
비율		45	7		2		23	19	3	1	100.00

\*출처: 국제개발협력위(2012), "국가협력전략", p.36.

원 출처: EDCF, KOICA

'무상의 경우 집행액 기준으로 KOICA 지원사업만 포함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KOICA는 2011년 현재 6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KOICA는 치타공 직업훈련원 역량강화 사업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4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것은 KOICA의 방글라데시 사업 중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표-8〉 KOICA의 대(對)방글라데시 지원 현상 (2011년 기준)

(단위: USD)

프로그램/프로젝트	주요 영역	주요 내용	기간	예산	요청기관
치타공 직업훈련원 역량강화사업	교육	·치타공 지역 내 직업훈련원의 낙후된 시설 개선 ·한국의 직업훈련 기술 전수를 통한 숙련된 기능 인력 양성 및 청년 취업을 향상	2011-2013	480만	해외취업복지부 노동훈련고용청 (BMET)
open University e-Learning 역량강화사업	교육	·저소득층을 위한 방송통신 대학에 쌍방향 교육매체 및 e-Learning 시스템 도입 ·원격학습체제 강화 및 교육 질적 향상 기여	2011-2012	270만	방글라데시 교육부/개방대학교
미작연구소 농기계 및 육종 연구역량 강화사업 가정방문	농업	·시험용 농기계 활용을 통한 미작연구소 역량 강화 ·시험용 농기계 기증, 사용법 연수 및 영농 연구 지원	2011-2013	200만	방글라데시 미작연구소 (BRRI)
중심의 산모 및 신생아 보건증진사업	보건	·개별 가정 방문을 통해 산모 및 신생아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신생아 사망률 30% 감소 목표	2010-2013	200만	UNoCEF
인사부 인사관리시스템 강화사업	정부와 시민 사회	·방글라데시 인사부내 선진화된 한국 인사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방글라데시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굿 거버넌스 실현 도모	2010-2011	130만/40만	방글라데시 인사부 (Ministry of Establishment)
방글라데시 태양광 관개시설 펌프 및 태양광 홈시스템 개발사업	농업생산성 강화	·농촌 주민들에게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을 공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농업 생산성 향상 기여 ·방글라데시의 심각한 전력난 해소	2009-2011	250만	방글라데시 농촌전력화 위원회-(Rural Electrification Board)

\*자료: KOICA 내부자료.(2011), 여성정책개발원연구보고서 재인용

### 3. 방글라데시 교육 ODA 현황

먼저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글라데시 ODA 지원은 유상 지원에 있어서 교육 분야의 지원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적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무상지원에서는 교육 부분의 지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2011년 기준 한국의 무상지원을 전담하는 KOICA의 교육분야 지출은 총지출 중 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표-9>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한국의 대(對)방글라데시 기술 및 ICT 분야 무상원조 지원 현황을 보면 다카대학교 과학기술센터 설립 사업(2001-03), 방글라데시 IT훈련센터 건립사업(2001-04), 한·방 교육분야 ICT 훈련원 건립사업(2006-07) 등을 주요 사업으로 들 수 있다.

<표-9> 1990년 이후 우리나라 교육개발협력 현황

원조형태	프로그램/프로젝트	사업목적	지원내용	기간	예산
무 상 원 조	방글라데시 다카대 한국어센터 지원사업	학과내 한국어 단기과정 개설 및 정규학과로 발전 지원을 통해 주재국내 한국어교육 보급	· 어학기자재 제공(70천불) : · 어학실습기 및 어학교재 등 · 교육 및 훈련(30천불): · 전문가파견 및 국내연수초청 · IT 기자재지원(510천불):	1997년	100 천불
	다카대 과학기술센터 설립사업	다카대내 과학기술센터 설립을 통해 동 센터 정보기술인력 양성기반 구축	· 서버, 컴퓨터 등 · 교육 및 훈련(140천불): · 전문가파견 및 국내연수초청	2001- 2003	690 천불
	방글라데시 IT 훈련센터 건립사업	IT 교육센터 구축을 통해 방글라데시의 정보통신 기술인력 양성 기반 구축	· IT 기자재지원(610천불): PC, 서버, 컴퓨터 관련 기자재 37종 등 · 교육 및 훈련(210천불): · 전문가 파견 및 국내연수 초청 · 내부공사 검사(10천불): · 재부공사 관련 자문 및 도면 제공 등	2003- 2004	1,000 천불
	한·방 교육분야 ICT 훈련원 건립사업	방글라데시 교육정보통계국 건물 4층을 개보수하여 ICT 교사 연수센터를 설립하여 훈련원의 교과과정 개발 지원을 통해 연간 약 1,500여명의 IT교사 양성에 기여	· ICT 교사 연수센터 개보수(230천불) : · IT 실습실(5개), 원장실, 휴게실 · IT 기자재 등(920천불): PC,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 교육 및 훈련(239천불): · 전문가파견 및 국내초청연수 · 건축(1,000천불) :	2006- 2007	1,400 천불
	방글라데시 국가 직업훈련 역량강화 사업	미르푸르 직업훈련원의 낙후된 시설기반 개선 및 우리나라 직훈 기술 전수를 통한 해당분야 발전 및 숙련기술 인력 양성	·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정비과, 산업설비과, 건축과 등 6개 공과 건물, 강당 등 개보수 · 기자재공여(2,500천불) : · 6개공과 훈련장비, 공통 컴퓨터실 기자재 등	2007- 2009	4,000 천불
	방글라데시 ICT 교육 훈련센터	· 128개면에 ICT 교육훈련 센터를 건립하여 전국	· 128개 ICT 교육훈련센터 신축 · 교육훈련용 기자재 공급 입찰준비	2009	차관 한도:

유 상 원 조	건립사업	<p>중등학교 교사들에게 ICT 교육훈련 실시하고 센터 내에 인터넷 카페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쉽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T 교육기반 마련 및 인재 육성 도모</li> <li>· 방글라데시 전지역에 인터넷 조기 확산 도모하여 ICT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li> </ul>	·제안서 평가 지원 및 시공감리 등 컨설팅 서비스센터 운영·관리인력 등에 대한 교육·훈련	39.0 백만불
------------------	------	--	---	-------------

이상의 한국의 방글라데시 ODA 교육 개발 지원 현황에 따른 시사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대(對) 방글라데시 교육개발지원은 주로 ICT관련한 직업훈련이나 기술 전문분야 등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기초교육에서 낮은 출석률과 높은 중도탈락율, 및 낮은 문해율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에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교육개발협력은 단발적이기보다는 관련사업간의 연계를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국가의 근간이 되는 주요 교육제도와 연관을 맺을 경우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방글라데시는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Digital Bangladesh'를 이루기 위해 ICT 직업훈련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와 같이 평생교육차원에서 지역 교육센터를 짓기보다는 기존 학교의 직업교육과 연계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수혜국의 긴박한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교육개선을 목표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방글라데시의 기초교육등록률은 교육협력이 양적팽창보다는 이제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할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의 질적 개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의 취약점을 보완하는에 있어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을 재교육하고 우수한 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 교육기관의 확충과 컨설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교육에서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여 앞으로의 교육개발지원은 이러한 면들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부족한 교사인원을 확충하고 교사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교육부 뿐 아니라 사립대학 등 민간부분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초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원의 연구력 향상과 교사교육을 초점으로 하는 고등교육의 지원은 교육의 질 문제를 통합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의 방글라데시에서 활동 중인 한국의 NGO 특히 PFBO의 교육기관들을 적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하여 ODA사업 파트너로 참여토록 한다면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형태, 즉 공공-민간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다섯째, 교육개발전략은 국가개발협력위원회 CPS의 중점분야인 1)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역량강화와 2)ICT교육기관의 역량강화, 3)초중고등학교의 IT교육강화와 그리고 범분야에 해당하는 여성과 환경문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발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 4. SWOT분석

한국은 기초교육을 기반으로 한 산업인력양성 등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산업화에 성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개발도상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직업훈련교육 분야의 국제

적인 비교우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IT선진국으로 IT교육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유아교육, 초등교육, 교사교육 그리고 IT관련교육 등 교육의 다양한 분야에 선진적인 콘텐츠가 있을 뿐 아니라 교육개발협력에 대한 사회전반의 긍정적인 정서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교육 ODA분야의 관련사업의 연계성과 지속성이 약하며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간의 연계 및 다자간 원조의 연계경험이 부족하다. 또한 방글라데시와 이슬람문화에 대한 이해가 다른 아시아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원국의 관점에서 보면 비교적 안정된 정치아래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며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점이라고 볼 수 있으나 만성적 적자재정을 겪고 있으며 후진국형산업구조와 높은 성인문맹률 등 빈곤으로 인한 요인들이 약점으로 남아있다. 또한 기회요소로는 자생적인 NGO단체 및 활발한 ODA국제기관의 활동과 기초대중교육부를 신설하여 MDGs와 EFA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1억 6천만의 인구 과다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등록율을 93%로 이끈 점은 이 나라의 발전 잠재력으로 보여진다. 위협요소로는 교육개발협력력을 통한 괄목할 만한 성과지표를 얻기에는 인구수와 인구밀도 등 인구환경의 장벽이 너무 높으며 공무원의 부패지수와 IT나 산업 인프라구축에 문제가 있다. 또한 교육개발협력력을 위한 기초자료와 행정적인 지원의 용이성에 대한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Strength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가 비교적 안정되었으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음.</li> <li>°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성적 적자재정을 겪고 있으며, 후진국형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li> <li>° 성인문맹률이 매우 높음.</li> <li>° 전체인구의 40%가 빈곤층선 아래 있고, 아동들의 노동력으로 생계를 잇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한 학교 중도 포기율이 높음</li> </ul>
opportunity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생적인 NGO단체 및 ODA국제기관의 활동이 활발함.</li> <li>° 기초대중교육부를 신설하여 MDGs와 EFA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왔고 1억 6천만의 인구과 과다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등록율 93%로 이끔.</li> <li>° 교육부는 높은 이탈율과 낮은 진학률을 극복하고자 양적팽창보다 질적성장에 대해 강조하기 시작함.</li> <li>° 새정부는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로 '인프라 개선'과 '숙련된 노동력' 확보(Asian Development outlook 2011,ADB)로 디지털 방글라데시를 지향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개발협력력을 통한 괄목할 만한 성과지표를 얻기에는 인구수와 인구밀도 등 인구환경의 장벽이 너무 높음.</li> <li>° 공무원의 부패지수가 매우 높음.</li> <li>° 새정부의 디지털 방글라데시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기술교육을 위한 IT인프라구축에 문제가 있음.</li> <li>° 절대빈곤과 산업인프라구축이 잘되어 있지 않아 교육을 소득창출과 연결하기가 용이하지 못함.</li> <li>° 성별 지역별 교육문제가 큰차이를 보임.</li> <li>° 교육개발협력력을 위한 기초자료와 행정적인 지원의 용이성이 의문시됨.</li> </ul>

#### IV. 대(對) 방글라데시 교육 개발 협력 전략

한국의 중점 협력국가 14개국을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한 이우성(2013)에 따르면 A-type(과학기술협력 국가형), B-type(교육질적개선 국가형), C-type(경제협력확대 국가형), D-type(기초교육확립 국가형) 중 방글라데시는 C-type의 국가로 경제협력확대 국가형에 해당한다. 경제협력확대 국가형 특징은 기초교육은 확립되어 있고 경제력의 경우 다른 대상 국가들에 비해 경제규모는 큰 편이나 인간개발 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와 EDI(EDI: Educational Development Index)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경제개발을 위한 인간개발과 교육개발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겠다. 국가개발협력위원회의 CPS에서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역량강화와 ICT교육기관의 역량강화 및 초중고등학교의 IT교육강화를 방글라데시의 주요개발과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직업교육이 성공한 요인을 교육에서 찾아본다면 교육의 질적 개선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바탕 위에 직업교육이 발전한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1960년대에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점 육성하였는데 그 근간에는 1960년대에 이루어 낸 ‘완전문해율 달성’이라는 기초교육의 성공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경험은 자국의 인력자원을 기술인력으로 양성해 주기 원하는 방글라데시의 요청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교육시스템의 질적인 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 1. 직업훈련 및 ICT훈련과 연계된 고등학교모델 운영 및 컨설팅

2009 교육정책에 발맞춘 고등학교의 IT직업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단발적인 직업훈련센터나 ICT 훈련기관을 독립적으로 설립하기 보다는 중등교육의 직업 및 IT교육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기존의 고등학교교육에서 직업 및 IT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모델 고등학교를 선정하고 이와 연계할 수 있는 직업훈련센터와 ICT훈련센터 선정하여 재건 혹은 시설을 확충한다. 이때 EDCF 혹은 KOICA 사업으로 2011년 건립된 ICT훈련센터중 하나를 선정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지역고등학교와 연계하거나 기존 NGO단체인 웰 인터내셔널 방글라데시 통기지역 직업훈련원 등을 모델 직업훈련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ICT훈련센터와 직업훈련센터와 연계될 모델고등학교를 선정하여 학교 내에 IT기반의 도서관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IT기반의 직업교육연계 고등학교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는 IT기반의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 ICT 훈련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교과과정 개발 및 직업훈련을 연계한 교육과정 시범 운영하고 컨설팅하도록 하며 현지 교사 워크숍 및 교사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의 성공적인 직업교육사례 및 직업교육과정을 탐색하여 현지에 적합한 직업교육 교과과정을 운영하며 한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생들의 자원봉사 인력 활용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명칭	직업훈련 및 ICT훈련과 연계된 고등학교 모델 운영 및 컨설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 교육정책에 발맞춘 고등학교의 IT직업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li> <li>- 단발적인 직업훈련센터나 ICT훈련기관을 독립적으로 설립하기 보다는 중등교육의 직업 및 IT교육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기존의 고등학교교육에서 직업 및 IT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li> <li>-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비전을 찾아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li> </ul>
선정 사유	<p>(한국의 발전경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교육 발전에서 단기간에 초·중등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여 직업교육을 성공적으로 함.</li> <li>- CPS에서 방글라데시의 중점분야인 직업교육기관 및 ICT 교육기관 역량강화를 기존의 고등학교교육의 역량강화와 함께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함.</li> </ul> <p>(비교우위)</p> <p>개도국에서는 한국의 IT산업의 발달로 IT교육이 선진화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IT교육을 벤치마킹하려고 함.</p> <p>(추진역량)</p> <p>그간의 교육 ODA는 한국의 IT산업과 관련된 직업훈련형태로 많이 이루어져 왔으므로 이에 대한 관련경험이 풍부함.</p>
구성 요소	<p>(사업요소)</p> <p>모델 고등학교 및 직업훈련센터와 ICT훈련기관 선정 및 시설 확충/ 연계교과과정 개발/ 교사역량강화 및 연수/ 연계고등학교 운영컨설팅</p> <p>(세부 사업 프로그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역별로 2개의 모델 고등학교 선정 이를 1개를 직업훈련센터와 그리고 1개를 ICT훈련센터와 연계</li> <li>② 2개의 모델 고등학교와 선정된 직훈련센터와 ICT 훈련센터를 위한 시설확충 혹은 재건 (고등학교내 ICT 도서관건립 및 직업훈련실습실 확충)</li> <li>③ 직업교육 및 ICT훈련교육을 기존의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교과과정 개발</li> <li>④ 교사역량강화 및 연수</li> </ol>
추진 방식	<p>(1단계) 모델 고등학교, 직업훈련센터, 그리고 ICT교육 선정 및 연계.</p> <p>(2단계) 고등학교내 ICT 도서관, 직업훈련실습장 시설보강 및 직훈 및 ICT센터시설 보강</p> <p>(3단계) 직업교육 및 ICT훈련교육을 기존의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교과과정 개발</p> <p>(4단계) 교사역량강화 및 연수</p> <p>(5단계) 직업교육과 연계한 고등학교 및 ICT교육과 연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운영컨설팅</p>

## 2. 여성교원양성을 위한 사범대학 신설 운영을 위한 컨설팅

교육부에서 발행한 한 보고서에서 이우성(2013)은 방글라데시를 초등교육의 교원교육이 필요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남녀교사비율의 불균형은 여성교육의 저해요인으로 나타난다. 특히 종교교육을 하는 마드라샤(Madrasha)에서는 91%가 남교사인 것을 보면, 남녀의 구별이 뚜렷하고 남성 지배적인 이슬람 사회에서 여교사의 부족은 양성평등교육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이 가졌던 사회진출이나 직업 획득의 열세를 보완하고 우수한 역량을 지닌 여성들을 교원으로 양성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동시에 양성평등을 구현하는데 의의가 있다. 면담연구에서 교육부의 한 관계자 Dr. Imtiaz Mahmud (Deputy Chief, Ministry of Primary & Mass Education) 또한 교사의 질과 교육 시스템의 질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으로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명칭	여성교원양성을 위한 사범대학 신설 운영을 위한 컨설팅
목표	-소외된 여성을 위한 교사교육 지원을 통하여 우수한 여성교사 배출 -우수한 역량을 지닌 여성교원 양성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연구력을 향상하도록 함
선정 사유	(한국의 발전경험) 한국의 유수의 여자대학교에서 양질의 여성교원을 배출한 경험이 있음. 여성문제는 우리나라 대 방글라데시 협력전략에 범분야에 해당함. (비교우위) 한국의 교사교육은 외국과 비교할 때 매우 우수한 인력들을 훈련하여 왔기 때문에 교사 훈련에 있어서 매우 성공적인 교원양성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 (추진역량) 현장교사 및 교육대학원 석사들이 참여할 수 있음. 한국의 우수한 여성교원교육기관의 협력을 구하기에 용이함. (선정사유) 교육에 있어서 여성차별의 문제가 심각함.
구성 요소	(사업요소) 기존의 교육기관에 교사교육 프로그램 신설 및 운영컨설팅, 교사재교육 과정 프로그램 컨설팅 (세부 사업 프로그램) ① 기존의 교사교육기관에 유초등교육을 위한 여성 교원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② 기존의 교사재교육기관의 여성교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 및 운영지원
추진 방식	(1단계) 협력 교사교육기관 선정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2단계) 여성교원 재교육 과정 프로그램 개선 및 운영지원

첫째, 기존의 방글라데시의 유일한 여성 중등교사 훈련교육기관인 Mymensingh Teachers Training College을 한국 우수한 사범대학과의 교사교육 협력관계를 맺도록 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학교의 Mrs. Rokeya Akhter Khanam(Principal, Mymensingh Teachers Training College)는 한국의 ICT Lab 등의 시설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파트너가 될 교육기관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협력을 통한 발전적인 교사교육의 모델 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Bangladesh Agricultural University는 6개의 학부로 구성된 대학교로서 1961년에 설립된 이후로 방글라데시의 발전을 이루는데 영향력있는 인재들을 배출하여 왔는데 학교가 필요로 하는 ICT Lab을 확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요구하고 하였다. 이 대학은 농경과 관련된 넓은 실습 장소와 비교적 우수한 시설들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이를 잘 활용한다면 직업교육과 중등교육을 할 수 있는 우수한 교사확보를 위한 기관으로 발전 가능하다고 본다.

셋째, 또 하나의 대안은 여성교원 재교육 과정 프로그램 개선 및 운영지원을 위해 BRAC University의 Master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다. 여기를 여성 교원의 Leadership 훈련 강화와 기존 교사들의 재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센터로 활용하면서 이를 확대하여 여성교원양성프로그램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교수공간과 기자재를 확보하고 그 외에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도시형 모델초등학교 지원 및 운영 컨설팅

방글라데시는 취학률은 거의 95%를 달성하였지만 문맹률이 높고, 중도탈퇴율이 높을 뿐 아니라, 중학교 진학률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해야 하는 과제에 봉착해 있다. 도시의 빈곤층 아이들은 생계를 위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노동의 현장으로 내어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중도 탈락의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학교 교육에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성공적인 학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학교가 갖는 실패요인과 취약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양질의 학교 모델이 필요하다.

명칭	도시형 모델초등학교 지원 및 운영 컨설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질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운영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초등학교의 질개선에 기여</li> <li>- 학교도서관과 학습미디어센터를 확충하여 양질의 교육환경의 개념을 제시</li> </ul>
선정 사유	<p>(한국의 발전경험)</p> <p>한국의 교육 발전의 성과는 단기간에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이루어 기초교육을 바탕으로 직업교육을 통한 국가의 발전을 이루어내는 기반을 구축함.</p> <p>(비교우위)</p> <p>방글라데시는 취학률은 거의 95%를 달성하였지만 문맹률이 높고, 중도탈퇴율이 높을뿐 아니라, 중학교 진학률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해야 하는 과제의 봉착해 있음. 따라서 양질의 교육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함.</p> <p>(추진역량)</p> <p>기준에 있는 민간지원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과정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함.</p>
구성 요소	<p>(사업요소)</p> <p>모델 학교 시설 재건, 교육기자재 지원, 교과과정 개발</p> <p>(세부 사업 프로그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교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 정비</li> <li>② 학교 내 ICT교육센터 및 도서관(실) 건립</li> <li>③ 초등학교교육과정 운영컨설팅</li> <li>④ 교사역량강화 프로그램개발 및 교사 연수</li> </ol>
추진 방식	<p>( 1단계 ) 학교 선정 및 학교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정비/ ICT교육센터 및 도서관(실) 건립</p> <p>( 2단계 ) 초등학교교육과정 정비 및 운영컨설팅</p> <p>( 3단계 ) 교사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교사 연수</p>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한국의 NGO가 설립한 학교 중 하나를 선정하여 모델학교로 선정하고 ODA지원을 통해 좀 더 효과적이고 전문성 있는 학교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학교시설의 확충과 교육환경을 정비하여야 하는데 정비된 도서실 및 도서와 ICT 기자재 등은 학습의 선진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뿐아니라 이를 교사교육과 연계하여 교원 연수와 훈련의 장 등에도 활용할 수 있겠다.

또한 한국의 초등교사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현지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을 컨설팅할 수 있으며 BRAC University의 Master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사 Leadership 훈련을 통해 교사의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학교 관계자들의 한국 방문 연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의 초등교사교육기관과 정보교환 및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의 대학이나 대학원생들과 교환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있겠다.

면담연구에서 한국의 NGO 단체인 Well International의 School의 한 관계자는 20여년간 방글라데시에서 교육분야에 종사하여왔는데 그는 한국의 교육ODA가 그간의 한국NGO가 설립한 학교를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교육연구기관의 한 관계자인 Erum Miriam Ph.D (Director of Institute of Educational Development in BRAC University)는 방글라데시 교육개발과 관련한 연구 및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동반자가 되어 협력관계를 갖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소리를 수렴하여 개발과제실행을 위한 다자간 협력, 민간부문과의 협력은 의미가 있다고 보며 이에 따라 적절한 협력 대상 선정을 통해 체제 구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표-10〉 방글라데시 초등학교 운영 한국 NGO 단체

단체명	초등교육사업	지부주소	연락처
웰 인터내셔널	비즈톨라 초등학교 운영	H-355, Block-C, Basundhara R/A, Gulshan, Dhaka, Bangladesh	880 1746652487
아시아포커스	시타쿤도바띠아리 지역 초등학교 무료급식 및 지역 보건교육사업	치타콩	880 31620875
굿네이버스	교육 및 아동보호 사업	House No,282 (5th Flr),Lane-4, D.O.H.S Baridhara, Dhaka-1206, Bangladesh	880 2 841 1760
방글라데시 개발협회	초등학교 운영	KDAB.218/3/A (6th & 7th FL) West Karful, Taltola, Begumrokeya Sarami Dhaka-1207, Bangladesh	880 2 9103691~2
한국희망재단	빈곤아동 기초교육 비정규초등학교운영, 교사훈련	방글라데시 쿨나 권역 사키라지역	

\*출처: 2011년 한국국제개발협력 CSO편람에서 정리

#### 4. 소외지역(remote area) 유아교육기관 설립운영컨설팅

취학전 교육은 3세-5세 아동을 대상으로 대체로 도시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교육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부설로 운영되는 ‘아기’교실이나 사립유치원 등에서 유아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초기아동발달이나 유아교육의 필요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상태이다. 이에 도시 빈민지역에 현지 환경에 적합한 유아교육시설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한국 NGO 유아교육 시설을 확충 재건하여 모델 유아교육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Beetzola School(한국 Well International School)은 Dahka의 빈민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초등학교 시설 내에서 유치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같이 작은 규모의 학교를 친환경적인 유아교육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주변의 비슷한 규모의 유아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들에게 유아교육기관 시설의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명칭	소외지역(remote area) 유아교육기관 설립운영컨설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제고</li> <li>- 현지환경에 맞는 양질의 유아교육모델 제시</li> <li>- 평생교육차원의 모자보건과 부모교육을 함께 통합할 수 있는 모델 제시</li> </ul>
선정 사유	<p>(한국의 발전경험)</p> <p>한국은 정부차원에서 유아교육에 양적, 질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인성교육과 정서교육에 유아교육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p> <p>(비교우위)</p> <p>한국의 유아교육의 발전의 역사와 경험사례는 저개발국가의 유아교육의 체계에 프로그램 구축과 발전에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임</p> <p>(추진역량)</p> <p>대학과 전문대학에서 참여가능한 전문가의 확보가 가능함.</p>
구성 요소	<p>(사업요소)</p> <p>모델 유아교육기관 설립/ 교육과정 구축/ 실행요원연수</p> <p>(세부 사업 프로그램)</p> <p>① 친환경 교육시설 설립 및 재건</p> <p>② 유아교육과정 및 부모교육교육과정 시스템구축</p> <p>③ 시범운영</p>
추진 방식	<p>(1단계) 친환경 유아교육시설 및 보육시설 설립</p> <p>(2단계) 교육과정확보와 시범운영(기존의 유아교육운영 민간단체참여)</p> <p>(3단계) 교사역량강화 및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실시</p>

이 기관에서 운영할 유아교육과정 및 부모교육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일의 시스템구축을 제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BRAC University의 현지 유아교육과정 전문가와 한국의 대학 수준의 유아교육과 혹은 대학 부설 유아교육기관이 참여하여 현지 환경에 적합한 유아교육과정과 부모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현지에 맞는 양질의 교육과정, 교사역량강화 및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실시를 할 수 있겠다. 다음의 <표-11>은 방글라데시의 현지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NGO 유아교육기관과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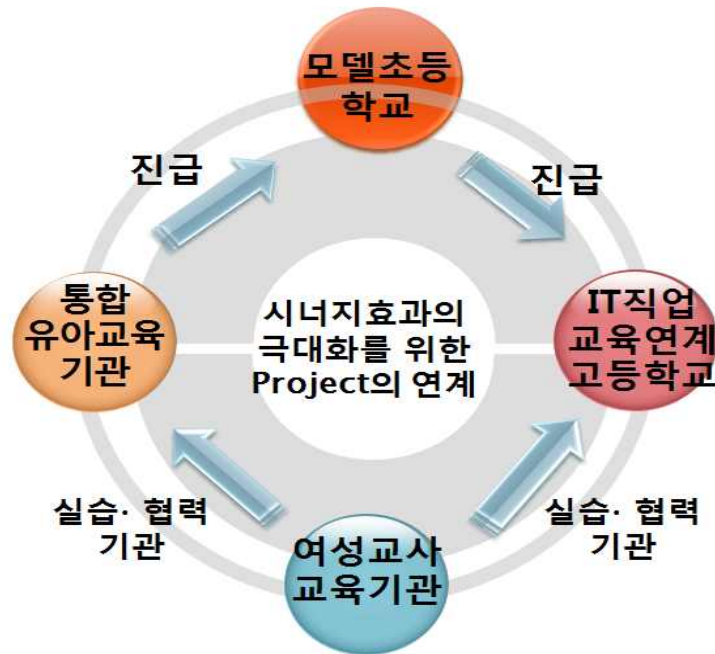
〈표-11〉 방글라데시의 한국유아교육기관

기관명	사업명	사업내용
웰 인터내셔널	가지뿔탁아소 운영	지역사회요청으로 미취학아동대상 정규반과 종일반 운영(방글라데시어, 영어, 수학, 미술, 이야기, 노래, 나누기 놀이 교육 등)
위드 사단법인	겨자씨 유치원 운영	유치원 어린이교육 유치원교사교육
세이브더칠드런	취약계층 영유아 교육지원(ECD)사업	유치원 건축/개보수, 교사훈련, 학부모 인식개선 활동
한국희망재단	-	소외 계층을 위한 공부방에서 유아교육과 초등1-3과정 교육 다카를 비롯한 6개 지역에서 소외지역 빈곤층 아동교육
굿네이버스	시라즈간즈/라이간즈 지역개발 사업	5개의 유치원 운영
	굴산 빈민지역 지역개발 사업	5개의 모자보호센터 운영 영유아들을 보호 양육하고 보건교육 및 진료서비스 지원
월드비전	보그라 지역개발 사업	버럭 바리아 유치원 운영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각종 예체능 활동

\*출처: <http://www.ngokcoc.or.kr>, NGO 유아교육사업자료

## 5.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프로젝트간의 연계

이상에 제시된 교육분야 4가지 프로그램은 CPS 중점분야와 범분야를 각 학교급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그림-3]과 같이 지리적으로 혹은 운영 면에서 상호 연계를 가지고 이루어지게 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개발원조에 대한 가시적인 홍보효과도 최대화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또한 앞서 제시한 교육개발협력의 4가지 프로그램간의 연계를 통해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협력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직업교육과 고등학교와 연결된 모델을 제시하고 이는 또 교사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실습·협력의 기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유아교육기관과 교사교육기관도 실습·협력의 연계선상에서 상호작용하여 서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림-3] 교육분야 4가지 프로그램간 상호연계

## V. 선교적 시사점

교육 ODA의 협력 단체로는 국제기구나 공공기관 외의 민간 혹은 종교 NGO 단체들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방글라데시의 교육 ODA 추진방안에 오랜기간 동안 방글라데시 교육에 개발 협력을 하고 있는 종교적 배경을 가진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 하였다. 기독교 배경을 가진 NGO단체 즉 PFBO(Protestant Faith-Based Organization) 혹은 PFBDO( Protestant Faith-Based Development Organization)는 대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근거하여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한재광(2013)의 연구에 의하면 <표-12>와 같이 우리나라의 FBO는 전체 NGO의 약 7:3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이중에서 개신교는 51%로 전체 FBO에서는 76.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12> Current State of FBOs in KCOC

	Contents(%)	
FBO	48 PFBDO (51%), In FBOs, 76.2%	63(67%)
	6 CFBDO (6.4%), In FBOs, 9.5%	
	5 BFBDO (5.3%), In FBOs, 7.9%	
	4 OFBDO(4.3%), In FBOs, 6.4%	
Non-FBO	31(33%)	
Total	94(100%)	

\*출처: 한재광(2013), p.23

이들은 학교 기관을 설립하는 등 현지 교육의 양적 질적 개발에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들 기독교 배경을 가진 단체들은 교육 개발 활동에 중점을 두게 되면서 종교적 색채가 약화되어 본질은 사라지고 ‘뽕’만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딜레마는 한편 개발전문가들로부터는 ODA 실행에 있어서 종교적 중립이라는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킬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배경을 가진 단체들은 선교와 개발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혹은 선교와 개발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는 대외적으로 그리고 대내적으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대외적으로는 PFBDO들이 ODA의 파트너로서 일할 때 제시되어지는 개발의 국제적 규범들 즉 종교적 중립성의 규범이나 수혜국의 요청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면 하는 규범들을 준수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FBO에 2001년 부시 정부는 ODA 자금 중 10%를 할애했으며, 2005년에는 약 20%로 지원이 상향 조정되었고 이중 98%가 기독교 단체에게 할애했었다(한재광, 2013). 이는 미국의 FBO들이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적으로 함께 일하고, ODA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견지해야 하는 ‘개발전문가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종교적 중립성’을 포용하고 따랐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사실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회적 참여의 동기가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는 있지만, 그들이 공적으로 제시하는 개발실행에 있어서 종교적 중립성을 최대한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의 모든 행동은 무엇을 하든지 종교 생활의 한 부분이고 성격상 종교적이다(김성수, 2011) 따라서 교육개발 협력에서 우리의 종교적인 동기를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이 신흥공여국으로서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의 종교적 배경을 가진 단체들이 ODA 파트너로서 보다 진정성 있게 참여함으로써 FBO들이 종교적 동기를 은폐하거나 폐기하지 않고도 개발에 성공적인 파트너로 일할 수 있다는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신흥공여국으로서 한국이 가지는 개발전문성의 취약점을 FBO들의 현지사역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대내적으로는 FBO가 가지는 개발의 규범을 견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하고 FBO활동에 대한 다양한 실천전략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고전적으로 ‘선교란 곧 복음전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의미하는 복음전파의 방법은 주로 ‘복음의 구두적 선포’를 지칭하였다. 즉 의료선교사는 환자의 병을 치료 하고 나서 환자와 마주 앉아 복음에 대한 내용을 구두로 선포하는 부분만을 선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교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선교에 대한 정의도 변화하게 되었다. 복음주의 진영에서 선교의 정의는 존 스토틀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스토틀는 선교란,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 양자 모두’라고 정의하였다. 결국 선교는 ‘교회가 이 세계 속으로 보냄을 받아서 해야 할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현모, 2007).

이렇게 선교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님의 재림으로 마무리될 하나님 나라 완성시점의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선포하고 그것을 삶으로서 증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기초하여,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지금 이 중간기에 삶의 현장에서 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죽어가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한국인터서브, 2011).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의무를 가졌고,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전인적 회복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선포뿐 아니라, 복음에 대한 전인적 반응으로서 개발도상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처해 있는 빈곤과 교육 소외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선교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PFBO들은 직접적인 전도나 복음선포를 할 수 없다하더라도 선교적 목적으로 참여하다면 선교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PFBO들은 이들의 활동이 궁극적으로 대위임(마태복음 28:19-20)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재광(2013)은 한국의 PFBD 27개 기관을 조사하여 이를 특성에 따라 1)신앙일치 유형(Faith-Permeated Attribute) 2)신앙중심 유형(Faith-Centered Attribute) 3)신앙배경 유형(Faith-Background Attribute)으로 나누고 이들의 개발참여와 실행에서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들 단체들은 첫 번째 유형에 가까울수록 선교 조직에 가깝다면 세 번째 유형에 가까울수록 비종교적인(secular) 개발 NGO의 양상을 띠었지만 결론적으로 이 세 유형들은 수입규모와, 개도국사업 책임자의 교인 여부를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책임자의 동기와 목적에 따라 개발활동에 차이를 보이지 않더라도 선교사업에 충실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서 교육개발을 생각한다면, 교육 자체가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 철저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개발에 참여하는 PFBO들은 기독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인식하지 않고 교육 개발에 FBO가 참여한다면 그 교육개발의 행위는 기존의 세속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흐름에 휩싸여서 '뽕'만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따라서 총체적 선교라는 개념아래 PFBO들의 교육개발사업들은 그 실행에 있어서 기독교세계관에 의해 그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들이 새롭게 점검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ODA와 연결되는 선교사업들은 영혼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교회사업과 비교할 때 간접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PFBO들은 각 개발대상국가의 선교상황에 맞추어 보다 전략적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ODA교육개발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 VI. 결론

신흥공여국으로서 한국의 ODA가 확대일로에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교육ODA의 추진전략을 알아보고 선교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우선 방글라데시 교육 및 교육ODA 현황을 알아보았는데 방글라데시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1) 기술훈련 과정에 노동시장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취업기회가 제한적이고



(ADB 2010: 45) 2) 정식교원의 비율이 71.9%로 낮은 편이며 또한 남녀교사비율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3) 초등학교취학률(95%)은 높으나 청소년 문해률(77%)이 낮고 중도탈퇴율(25%)이 높고, 중학교 진학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4) 유아교육의 인식은 매우 미흡한 편으로 약 10% 되지 않는 수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도시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유아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소외지역에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필요가 매우 높다.

방글라데시교육은 상당한 부분 교육개발원조와 국내의 NGO단체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간 한국은 주로 직업훈련을 지원하여왔다. 향후 한국의 대 방글라데시 교육ODA의 중점 분야 역시 지금까지와 비슷하게 직업훈련, ICT교육강화, 초중고등학교의 컴퓨터교육강화로 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가수준의 추진전략을 반영하면서도 방글라데시교육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중점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 1)직업훈련 및 ICT훈련과 연계된 고등학교 모델 운영 및 컨설팅
- 2)여성교원양성을 위한 사범대학 신설 운영을 위한 컨설팅
- 3)도시형 모델초등학교 지원 및 운영 컨설팅
- 4)소외지역(remote area) 유아교육기관 설립운영컨설팅

이상의 프로젝트들은 상호연결되어 보다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 지원됨으로써 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이러한 추진 전략들은 방글라데시에서 활동하는 PFBO의 학교사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PFBO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명령과 세례를 주고 가르쳐지키게 하라는 대위임명령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를 위하여 PFBO는 대외적으로는 종교인들이 가지는 종교적 동기와 목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위한 노력과 함께 개발관점에서 요구되는 국제적인 개발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선교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다양한 차원의 선교전략들이 간구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PFBO들의 교육ODA의 참여는 선교적 차원에서 볼 때 분명한 한계를 가지지만 적극적으로는 신흥공여국인 한국의 개발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독교인들은 모두 삶의 전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ODA개발사업에 참여할 때는 “그들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종교적 중립은 견지할 필요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행동이 종교적 방향성을 가진 행위임을 기억하고 동기와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더불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11). "방글라데시 개발협력전략 2012-2015 초안"
- 교육부. (2013). "중점협력 국가별 교육과학기술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 총괄보고서"
- 국제개발협력위. (2012). "국가협력전략-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 김성수. (2011). 개혁주의 기독교교육학의 본질과 전망. 『2011년 기독교교육연구소가 주최하는 연합 학술대회자료집』.
- 김원근. (2011). 한국의 NGO 정책과 기독교 NGO. *글로벌기독교세계관학회*, 4(-), 31-45.
- 김은미. (2012).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추진방향 연구. *KOICA ODA 연구*, 18(223).
- 김희연, & 김태환. (2012).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의 경제성장 기여도 분석과 선교 전략적 함의. *기독교학문연구회*, 17(1), 43-78.
- 관계부처합동. (2011). "방글라데시 개발협력전략 2012-2015 초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추진 방안"
- 라이트, 크리스토퍼. (2010). *하나님의 선교* (한화룡, 정옥배 역.). 서울: IVP.
- 박태준. (2007). 아프리카지역 교육지원사업 타당성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신서균. (1993). *선교학 개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이계우, & 박지훈. (2007).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20년의 평가. *한국개발연구원*, 29(2), 41-74.
- 이찬희. (2008). "한국형 교육개발협력 모델구축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현모. (2007). 『현대선교의 이해』. 서울: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 KCOC. (2011). 『한국 국제 개발협력 CSO편람』. 서울: 한국무상원조협의회.
- KOICA. (2008). 『2008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서울: 한국무상원조협의회
- ODA KOREA. (2012). 『방글라데시 최근 지원상태 보고서』. 서울: 한국국제개발협력단
- Jae Kwang, H. (2013). *A Study on Protestant Faith-Based Development NGOs(PFBDs)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Attribute and Typology*. (국내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Ahmed, M(Ed). (2011). *Education In Bangladesh*. Dhaka: BRAC University Press.
- IED(2010), *Educational Access in Bangladesh Country Research Summary*, BRAC University
- UN(2012), *MDG Report 2012*
- UNESCO(2011), *Bangladesh World Data on Education 7th ed, 2010/11*
- UNESCO(2011),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11*
- OECD 통계자료 <http://stats.OECD.org>
- UNDP 방글라데시 사무소 <http://www.undp.org.bd/>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http://www.ngokcoc.or.kr>
- 방글라데시 교육부 <http://www.MOEdu.gov.bd/>
- 방글라데시 대외협력청(원조총괄기관) <http://www.erd.gov.bd/>
- 한국국제개발협력단 <http://www.odakorea.go.kr>
- 한국국제협력단 <http://koica.go.kr>
-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http://www.edcfkorea.go.kr/edcf/index.jsp>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